“혜승 대종사 수행 전법 본분사 되새겨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당 혜승 대종사 영결·다비식 엄수

2월 11일, 의성 고운사 일대서 열려
종정 성파 스님 게송으로 추모 전해
진우 스님, 살아온 궤적 회고하며
“도량 재건 불사 원만 회향 증명”


2월 7일 원적에 든 송암당 혜승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2월 11일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일대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의성 고운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포교와 전법의 원력으로 한평생 포교 현장을 지켜오다 지난 2월 7일 홀연히 원적에 든 송암당 혜승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2월 11일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일대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된 영결식에서 의장 자광 대종사는 영결사를 통해 혜승 대종사의 업적을 되새기고 게송을 읊으며 추모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혜승 대종사는 인욕행을 통한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과 경과 율을 두루 익혀 수행했으며 평생 불법홍포에 힘쓴 선지식”이라며 “법공양을 잘 간직해 역겁에 매하지 말고 진리의 삼매악을 누려 달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혜승 대종사의 삶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막힘도 걸림도 없이 구순(九旬)에 이르도록 화광동진(和光同塵)했으니, 이는 하화중생(下化衆生) 길을 몸소 보여 준 지남(指南)이라 할 것이요 만세의 모범이라 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화마가 휩쓸고 간 고운사 도량의 재건을 발원한 스님은 “겁화가 휩쓸고 간 등운산 자락에서 종단과 교구의 사부대중은 회두토면(灰頭土面) 보살정신으로 새싹을 돋우고 꽃을 피우고 산림을 되살리며 고운사 도량을 재건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대종사께서는 열반정토에 오래 머물지 말고 속환사바해 대작불사의 원만 회향을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후학들을 위해 들려준 혜승 스님의 불이법문을 그리워했다. 주경 스님은 “중생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며 해맑게 웃던 존안은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울림”이라며 “후학들은 대종사가 열어 보인 길을 따라 향상일토의 정진을 이어 나가겠다. 수행과 전법의 본분사를 되새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조사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자리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비구니 수행자들의 길을 격려해 준 그 은혜를 5000여 비구니 대중의 마음을 모아 깊이 새긴다”면서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도를 대표해 호성 스님은 사부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삼배로 인사했다.

1936년 충남 대덕에서 태어난 대종사는 1951년 16세에 논산 개태사로 출가, 6년 동안 행자생활을 했다. 1956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판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58년 해인사 승가대학 사집과를 졸업하고 의정부 도봉산 원각사 주지, 양주 회암사 주지, 의정부사암연합회장을 역임했다. 의정부 불교원 정혜사를 건립했으며, 유치원 및 운전자불자회, 군법회 등 지역포교와 전법에 매진했다.

2022년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제8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2008년 10월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2012년 양주 연화사를 창건, 현재까지 연화사 주지, 고운사 회주로서 후학들을 제접해 왔다.

‘옛사람 스스로 가니 난간에 눈이 쌓이고(故人自去雪欄干) 서둘러 가는 저녁 구름 고갯마루 옥안장 삼았구나(趨走暮雲嶺玉鞍). 달도 숨은 텅빈 산에 석장하나 의지 했는데(無月空山依錫杖) 조그만 암자 풍경소리 그 곡조 외롭고 쓸쓸하구나(小庵風磬曲孤寒)’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2월 7일 밤 11시 45분, 법납 71년, 세수 91세로 원적에 들었다.

동국대 “로터스관 불사, 안전 공사 기원합니다”

2월 10일 안전기원법회 봉행
돈관 스님 “안전 최우선으로”


2월 10일 열린 동국대 로터스관 신축 안전기원법회에서 현장소장의 선창에 맞춰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한 참석 대중들이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동국대 로터스관 건축 현장 무재해로 나아가자!”

동국대(총장 윤재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신축 불사의 안전 공사를 다짐하는 무재해 구호가 공사 현장에 울려 퍼졌다.

동국대는 2월 10일 로터스관 공사 현장에서 ‘로터스관 신축 안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과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 등 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돈관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은 부처님께 향과 차를 올리고 로터스관 신축 불사가 원만회향하길 기원했으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봉독하며 관세음보살에게 자비와 지혜를 구했다.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동국대 120년 역사에서 로터스관 신축불사를 위한 시절인연이 드디어 도래했다”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명심하고 동국인의 염원이자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로터스관이 바로 설 때까지 기도와 발원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 연구 복합시설인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 △선센터 △러닝 커먼스 △대형 교육공간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8년 8월 완공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평화 위한 3700km 행진 108일째날 회향

스님 17명 ‘평화를 위한 행진’
텍사스~워싱턴 DC 도보순례
美 연방에 베삭데이 휴일 요청

‘평화를 위한 행진(Walk for Peace)’이 미국 내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스님들은 지난해 10월 순례를 시작해 108일째인 2월 10일 목적지인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스님들의 순례와 시민들의 반응을 ‘더 리치몬더’, ‘VPM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지난해 10월 26일 ‘미국과 전 세계에 평화, 모든 이들의 마음챙김’을 주제로 20명의 스님들은 텍사스 포트워스를 출발, 워싱턴 DC까지 10개의 주를 횡단하는 3700km의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침묵 속에 도보순례를 이어 나가는 스님들의 모습은 미국 시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다.

순례단을 이끄는 판냐카라 스님의 뜻에 동참한 스님들은 모두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스님들로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전통적인 불교국가는 물론 미국, 프랑스 등 서구권의 스님들도 함께했다. 순례는 엄격한 계율에 따라 매일 좌선과 예불, 오후불식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순례단에 이어 지원 차량과 캠핑카가 뒤따르며 스님들을 보조했다. 순례단은 오전에 걷기 시작해 점심공양 후 요청이 있는 경우 경로에 있는 사찰이나 광장 등에서 약식 법회를 봉행하거나 평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평화를 위한 행진은 기간 중 몇 번의 사고를 겪었다. 11월에는 트럭이 순례단을 덮치는 사고로 스님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 스님은 다리를 절단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결국 순례를 중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순례단은 평화를 바라는 일념으로 순례를 이어갔다.

이러한 소식들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 전해지면서 순례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순례단이 목적지인 워싱턴 DC에 가까워지자 순례단을 보기 위한 인파들이 점점 늘어났고, 일일 도보순례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늘었다.

특히 순례를 시작한 지 100일 째였던 지난 2일, 리치먼드시에 입성한 순례단을 대니 아불라 리치먼드 시장과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시청 앞에서 맞이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날을 ‘평화를 위한 행진의 날’로 선포하며 기념했다.

2월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순례단은 워싱턴 국립 대성당 앞에 모인 수천 명의 대중들과 함께 호흡명상을 진행했다. 순례단을 이끈 판냐카라 스님은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자 의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을 이 순간으로 되돌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례단을 마중 나온 시민들은 “세상에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인종, 신념, 민족에 상관없이 웅크렸던 곳에서 나와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며 기뻐했다.

순례단은 2월 11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국제 부처님 오신날인 베삭데이를 미연방의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미의회에 요청한 후 링컨 기념관에서 순례를 회향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100일째 되던 날 리치몬드시에 입성한 순례단의 모습. 사진 출처=Wtop 뉴스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